

## 學期制 調整案의 基本方向

崔 熙 善

(文敎部 敎育政策室 第2調整官)

## I. 趣 旨

敎育이 오늘날처럼 人間生活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본 때는 없었다. 學校는 幼兒와 成人의 일부를 제외한 靑少年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는 거대한 社會制度로 발전되었다. 이는 해방 전과 그 이후의 우리 나라 敎育의 양상을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敎育의 規模나 機能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巨大化되고 複雜化되고 多樣化되었다. 따라서 敎育이 지니는 문제도 敎育단계별, 敎育형태별, 學校의 설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敎育은 그 문제를 單純한 制度로 처리하려던 시대는 지나갔고, 산업사회에서 볼 수 있는 複合形態의 敎育制度和 敎育機能을 요구하고 있다. 靜態的인 사회에서 제도화되었던 學校는 그 후 사회가 動態的으로 변동함에 따라 점점 사회에서 遊離되고 뒤떨어지게 되어 機能障礙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오늘날 先進國에서도 敎育의 問題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랜 기간 國家發展을 위해 敎育개혁을 추진하여 왔고, 그것이 오늘의 선진국이 된 기초가 되었지만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치열한 國際競爭은 敎育에 있

어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은 그들 국가 나름대로 해결해야 할 敎育的 課題로 인해 내부적 진동은 물론 사회적 여건과의 마찰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모든 국민을 위한 敎育」을 목표로 敎育을 통한 국가건설을 시도하여 왔으며, 1957년 소련의 Sputnik Shock로 대폭적인 敎育改革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1983년 4월에 國家敎育振興委員會에서 발표한 敎育白書인 「A Nation at Risk」에서는 미국의 敎育이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하면서, 그 원인이 1960년대의 학원소요와 그러한 현상을 容認한 사회와 부모들의 나약성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敎育계는, 스푸트니크 충격이 사라진 후 학생들의 興味와 要求에 치중한 敎育制度, 敎育內容, 敎育環境을 마련한 결과, 放任과 放縱으로 미국의 敎育은 보잘것없는 결과밖에 얻을 수 없었다고 분석하고, 이제부터라도 敎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대책에 부심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프랑스에서도 敎育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진아 및 우수아에 대한 특별지도와 영재 敎育 등 여러 가지 敎育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영국은 기초 敎育의 내용, 방법 및 과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中等단계에서는 學力考查를 더욱 內實化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高等敎

育機關의 재편성으로 대학의 教育水準 向上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독은 高等教育分野에서 교육인구의 量的 확대와 財政 지원의 감소로 인하여 학생정원의 조정, 재학년한의 제한, 대학의 구조개편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교육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최소 適正 規模에 관한 기준을 조정하려는 교육정책과 대학진학 및 직업교육의 기회보장에 관한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보면 人間教育에 역점을 두어 현행 교육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高度 産業社會에서의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와 학교교육의 엄격성 결여 등으로 인간 교육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학의 教育課程과 教授方法에 대한 개선이 추구되고 있다.

결국 선진국에 있어서의 教育的 課題는 量的으로 증대된 교육의 質的 充實을 도모하는 일과 教育的 現代化가 큰 과제가 되어 多方面에 걸친 教育改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 나라도, 1960년대에는 국가가 교육의 量的 增大로 바쁜 시기였다면 1970년대에 와서는 교육의 양적 확충을 계속하면서 質的인 발전을 시도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를 위시해서 1973년의 고교평준화 등 중등학교의 入試制度의 개혁을 비롯하여, 대학시설의 확충과 실험대학의 운영 등 대학의 質的인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교육은 人力을 개발해서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자주 국방에 필요한 安保意識을 고취했으며 민족문화의 창조 육성에 따른 한국적인 價値를 體系化하는 등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물질주의의 팽배에 대처하는 人間教育과 價値觀教育의 부족, 誤導된 교육열에 의한 과열과외, 임시위주 교육의 팽배, 대학교육의 自律的인 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한 質 문제 등 너무도 큰 새로운 교육의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누적된 당면과제는 교육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있었고 사회현상과 깊

게 관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對策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여러 부면에 걸친 教育改革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教育改革은 궁극적으로 自律과 責任을 바탕으로 하는 자급 학교에서 수행되는 것이며 따라서 학교의 능동적인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특히 고등교육의 자율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한 시책의 하나가 대학교육협의회의 구성과 그에 따른 역할 기대라고 하겠다. 대학교육협의회가 1983년 4월 8일에 문교부에 건의한 大學의 學期制 調整 및 授業運營 效率化案도 그와 같은 취지의 일환인 것이다. 즉 이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그동안 선진국의 사례나 우리 나라 각 대학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과의 연구·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 II. 現況 및 問題點

文教部와 各 大學은 그동안 大學教育 改革事業을 통해 大學生의 學習量과 그 質을 높이기 위하여 圖書館 擴充, 模型教育課程 開發, 授業과 評價方法의 개선 및 행사 등으로 인한 授業缺損防止 등 學事運營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傾注하여 왔다. 그러나 現行 學期制에 대해서는 研究와 檢討가 소홀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教授·學習改善을 위한 노력도 學期別 授業期間의 不均衡과 夏季放學 期間의 부족으로 인한 活用度 미흡 및 構造的 矛盾이나 傳統的 因習 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은 물론 그동안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的 發展과 變化를 충분히 受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되어 왔었다. 그렇다고 여건이 서로 다른 外國의 多學期制를 그대로 受容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問題가 惹起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제반 여건에 알맞는 學期制 運營 改善 方案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서 大學의 공동 관심사와 당면과제를 協議, 調整하기 위해 발족한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관계전문가와 함께 집중적 연구 검토 끝에 현행 2學期制의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1,2學期

의 授業週數를 법령상 수준인 16週(1學點은 학기당 16시간 이상의 수업량임)로 하고, 그 시기를 조정하여 敎授나 學生 및 社會人의 측면에서도 活用度가 높은 夏季放學을 延長 活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고, 文敎部가 이에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그 시행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현행 學期制 운영에 있어서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學期別로 수업 이수 기간의 不均衡이 극심하다는 사실이다.

법령상 현행 학기는 1학기가 3월 1일부터 8월 31일, 2학기가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되어 있고, 授業日數는 대학별로 학기당 105일(17주)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체로 1학기가 13~14주, 2학기는 10~11주로서 연간 4~6주의 基準未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1,2학기간에도 3~4주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현행 법규에도 季節學期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있으나 形式的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학의 계절학기는 성적불량자나 학점 미취득자 등을 위해 消極的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나마 등록금제의 硬直性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중단상태에 이르고 있다.

셋째, 敎育課程 운영에서 수업기간은 授業日數와 授業週數의 2元的 운영으로 규정되어 있어 實質 授業期間이 形式化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학이 學點制로 되어 있기 때문에 授業期間을 週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대학의 수업기간이 日數와 週數의 2원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

넷째, 대학에 따라서는 연간 授業時間數 확보가 不確實하여 授業時間 意識의 미흡은 물론 대학생들의 성취의욕 저하와 더우기 學習量과 質이 빈약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先進國의 대학들은 대학의 행사와 수업을 철저하게 분리 운영하여 행사로 인한 授業缺損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 나라 대학들의 學習量과 質이 대체로 선진국보다 미흡하다는 사실은 授業時間 확보

의 불충실과 함께 學習方法 그리고 支援體制의 미흡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네째, 大學施設 活用率이 低調하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大學들은 年間 遊休期間이 120~130일로서, 우리보다 넉넉한 선진국의 大學들이 年間 거의 전부를 開放하여 活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특히 學習社會 실현이라는 平生敎育의 理念的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 大學들은 學期 運營의 硬直性으로 대학의 개방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夏季放學 활용을 위한 期間의 適切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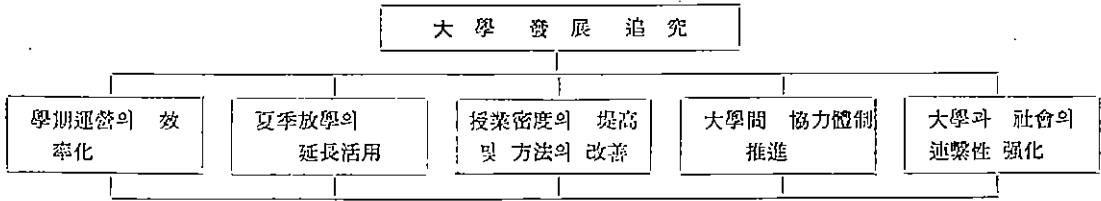
우리 나라 대학들의 하계 방학기간은 대학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7월 15일경부터 8월 20일경까지 약 7주 정도이며, 동계방학기간은 12월 15일경부터 다음해 2월 28일경까지 약 10~11주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동계방학은 활용하기에 어려운 시기라는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學事日程 에컨대 入試, 卒業, 入學 등으로 敎授나 學生 및 社會人들을 위해 대학을 개방하거나 다양한 要求에 부응하도록 운영하기 어려운 반면에, 하계방학은 활용하기에 비교적 유리하게 되어 있는 있으나 期間이 不足한 것이다.

美國, 英國, 프랑스, 西獨 등의 대학들은 하계방학이 2.5~3.5개월로서 교수들은 研究活動이나 각종 學會, 세미나 등의 참석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學生들은 夏季學期나 副業 등 자자의 요구에 따른 自我實現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되며 더 나아가서 社會人들에게는 대학을 개방해서 學習의 機會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의 대학의 학기는 너무 硬直되게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期間의 차이는 우리의 學期制가 外國과 連繫를 어렵게 함으로써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 國際社會의 開放化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는 점이다.



〈圖 1〉 學期制 調整案의 基本方向

### Ⅲ. 改善方向

#### 1. 基本方向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장차의 教育發展 方向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學期制 調整案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現行 2學期制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期間의 조정과 그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大學生들의 學習量을 증대하고 授業密度를 높인다.

둘째로, 夏季放學을 延長하여 教授 및 學生들의 多様な 요구에 부응토록 활용하고, 社會人들에게 대학을 개방함으로써 大學과 社會의 연계를 통한 平生教育의 이념구현에 기여하며, 대학 시설과 제정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이다. 이를 요약하면 위의 圖 1과 같다.

#### 2. 學期區分과 運營

새로운 學期制調整案에서의 학기구분은 제 1 학기가 2월 제 4 주로부터 6월 제 2 주까지의 16주로 되어 있고, 제 2 학기는 9월 제 1 주에서 12월 제 3 주까지의 16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계방학 기간은 6월 제 3 주에서 8월 말까지의 12주이며, 동계방학은 12월 제 4 주에서 다음해 2월 제 3 주까지의 8주간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기제 조정에 따라 운영면에서 다음 사항들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로, 現行 2학기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며 학기별로 期間, 性格 및 比重 등에 있어서 均衡性을 유지하고, 實質 授業時數의 算定은 日數에서 週數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둘째로, 夏季放學(學期)의 延長 활용으로 教授, 學生, 社會人의 多様な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며 外國의 學期制와의 연계성을 높인다.

教授들에게는 集中的인 研究活動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며 國內外 學會나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大學生들에게는 實質的인 自我實現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한 서클활동의 적극화, 부업기회의 부여, 국내·외 연수활동 참가 및 學點履修를 위한 여름 학기를 점차 확대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한편 敎職員, 職場人, 軍人 등 社會人들에게는 대학을 개방해서 연수기회를 부여하되 學點化를 통한 학위·학력 취득도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셋째로, 각종 행사나 활동으로 인한 授業缺損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학생들의 학술활동이나 행사를 위축되지 않도록 하되(오히려 하계방학을 통한 활동은 더욱 적극화 기대) 종전처럼 行事로 인해 授業이 부실해지는 경향은 억제되

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授業週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冬 季 放 學 (12週) →				← 第 1 學 期 (16週) →				← 夏 季 放 學 (12週) →				← 第 2 學 期 (16週) →			
	1 2 3 4 5 6 7 8 9 10 11 12															
	週															

〈圖 2〉 學期制 調整案에 따른 學期區分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로, 學習密度를 높이기 위한 授業體制를 확립하는 것이다.

특히 學術情報交換體制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로서, 대학도서관의 학술 정보기능을 활성화하며, 국내외 학술 정보의 대학간 공동활용을 위해 컴퓨터體制로 전 도서관을 연계시키는 과제 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 3. 關聯對策

위와 같은 大學教育協議會의 學期調整案은 새로운 大學 風土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大學施設 活用的 多目的化, 夏季放學(學期)의 延長에 따른 다양한 활용, 大學開放에 따른 教育機會 확대, 외국대학 學期와의 연계성 용이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되나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요청된다.

첫째로, 學期調整에 따른 大學內 학사 일정의 조정 및 高 3學年의 入試 등과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점이다.

둘째로, 夏季放學(學期) 운영의 효율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논의해 온 바로서 바람직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이나, 특히 각 대학별로 특성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째로, 대학의 授業量과 質을 선진국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教育課程 運營의 內實化를 기하는 일이다.

네째, 大學의 開放에 따른 社會教育的 機能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이미 몇몇

대학에서는 발전적인 프로그램과 시행안을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거니와, 모름지기 각 대학들은 개방사회내에서 대학의 기능을 확대 발전시키는 이념을 추구해 나갈 기반이 마련되리라 보인다.

다섯째, 大學資源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여섯째, 학기조정에 따라 추가되는 廢房費를 확보하는 일이다.

학기조정안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난방비는 1주일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학기제하에서도 각 대학들은 확보되어야 할 수업일수가 난방문제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학기제 조정안과 관계 없이도 우리 나라 대학의 廢房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새로운 방안이 제기되면 기대되는 效果에 못지 않게 관련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시행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으리라 본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며 상당한 인내와 노력이 수반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물며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생활규범을 다른 방향으로 변경할 때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현실에만 安住할 때 발전을 기약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學期制에 대해 大學教育協議會가 모처럼 건의한 조정안이 각 대학의 自律的인 관심과 노력으로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바라며 그 효과를 기대해 본다. \*